

코로나19에 ‘노인 일자리센터’도 휴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급여는 계속 지급 예정”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관 등 취약계층 14종 이용시설에 권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막기 위해 노인·아동 관련 이용시설에 휴관 권고를 내놨다.

특히 정부 일자리 사업의 핵심이었던 노인일자리센터도 권고 대상에 들어갔다. 다만 휴업 시에도 급여는 계속 지급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중심으로 휴관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고된 휴관기간은 2월28일부터 3월8일까지다.

특히 정부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재정 투입에 주력해왔던 노인 일자리 센터도 문을 닫게

된다.

다만 휴관 권고 대상은 여러 사람이 함께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에 한정된다. 또 휴업 시에도 노인들에 급여는 계속 지급한다.

김 조정관은 “취약계층 일자리의 경우 휴업 시에도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며 “사업 재개 후 기존 활동 시간 연장을 통해 활동비를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고 대상인 14종 이용시설은 대상 계층에 따라 다음과 같다. △아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그 외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26일 오후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요양원에서 한 어르신 이 피난 미끄럼대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서부소방서 제공)

‘피난 미끄럼대’ 활용하니 골든타임 5분 내 대피 가능

광주 서부소방서, 요양원 시범 설치 후 확대 권고

재난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대피를 돕는 ‘피난 미끄럼대’가 대피시간을 골든타임인 5분 이내로 대폭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부소방서는 26일 오후 광주 서구 농성동 효드림실버홈 요양원에서 피난 미끄럼대를 시범 설치하고 대피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도 재난 후 골든타임인 5분 내에 대피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 근무 직원 5명이 노인 10명을 계단, 완강기 등을 통해 대피시킬 경우 평균 13분8초가 걸렸으나 피난 미끄럼대를 활용하면 평균 4분40초의 시간이 소요됐다.

또 고층건물의 성능우수설계에 활용되는 화재시물레이 션 (FDS: fire

dynamics simulator)을 활용해 미끄럼대 설치 전·후 피난시간을 분석한 결과 설치 후 대피시간이 1분14초 감소했다.

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장성 요양원 화재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해왔다.

김영돈 서부소방서장은 “피난 미끄럼대는 사용이 어려운 구조대와 완강기를 대체할 수 있는 고정식 피난기구로 실험을 통해 대피시간이 대폭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요양원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피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난 미끄럼대를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아라 기자

ETRI-TTA 시청각장애인 위한 미디어 기술 개발 협력

한국 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오는 28일 경기도 성남시 TTA 본사에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미디어 접근성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시청각장애인들이 VOD, CG 등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쉬운 내용 전달과 이해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양 기관은 향후 △감정표현 자막기술 △감정표현 아바타 수어(手語) 서비스 기술 △감정표현 음성합성기술 기반 음성자막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 방송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도 한다.

ETR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청각장애인의 미디어접근권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주관하고 있고, TTA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소외계층의 방송·미디어 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을 수행 중이다.

ETRI를 중심으로 장애인방송 관련 과기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기술개발과 TTA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사업이 긴밀하게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양 기관은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지원하는 감성표현 서비스 개발’을 2021년 말까지 완료한 뒤 표준화를 통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장흥군 장평면, ‘희망가득 우체통’ 운영

복지사각 발굴 제보창구로 활용...5개소 운영

장흥군 장평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6일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0 희망가득 우체통’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희망가득 우체통’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지역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만든 제보창구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보다 효과적으로 상시 발굴하기 위해 장평면 내 5개소(장흥군 북부통합보건지소, 봉림진료소, 부평진료소, 장평교회, 장평성당)에 설치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본인 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 담당 공무원이 우체통을 확인해 대



상가구를 방문하여 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문병욱 장평면장은 “희망가득 우체통은 이웃사랑 실천의 기회이자 내 이웃이 위기를 헤쳐 나갈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희망가득 우체통을 통해 장평면민들의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위지훈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